

올 새해를 해방의 해로 축하해라.
모든 것을 가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성공을 얻어라.

오늘 밥다다는 새로운 생을 경험하고 있는 고귀한 영혼들, 새 시대의 창조자인 영혼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새해가 시작되고 있는 반면, 너희 자녀들은 마음으로 새 시대를 기억하고 있다. 내일이면 새해가 시작될 텐데, 그와 마찬가지로 내일이면 새 시대도 역시 올 것이다. 너희들의 새 시대가 곧 오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느냐? 오늘 인간 영혼들은 새해에 대한 행복과 일시적인 열의를 가슴에 품고 있는 반면, 너희 영혼들은 새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영구적인 행복을 느낀다. 너희들은 그것이 단지 오늘과 내일에 불과한 일이라는 것을 느끼느냐? 오늘은 낡은 시대이고, 새 시대인 내일이 바로 너희 앞에 와 있다. 드라마에 따라서 그것은 다만 오늘과 내일의 문제일 따름이다. 너희들은 이 인식을 뚜렷하게 경험하느냐? 아니면, 너희는 그저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을 뿐이냐? 새해는 너희들에게 새 시대를 상기시킨다. 너희가 내일 무엇이 될 지에 관해 너희들은 마음으로 열성과 열의를 느끼느냐? 너희의 새 몸이라는 옷이 너희들 앞에 나타나느냐? 새 시대에 너희들의 새 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기억나느냐? 그 시대가 어땠느냐? 그 왕국은 어땠었느냐? 원소들은 어떻게 너희의 하인들이었으며 얼마나 사토프라단했느냐? 너희 왕국에 대한 주권의 단계를 분명하게 인식하느냐? 그 새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수 있느냐? 너희의 왕국에 대한 권리를 1초 이내에 경험할 수 있느냐? 아니면 너희는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1초에 너희 자신을 새 시대로 데려가라. 그리로 가는 방법을 아느냐? 너희가 왕국에 대한 이 주권을 몇 번이나 획득했었느냐? 그걸 기억하느냐? 너희의 왕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경험해라! 그것은 독특하면서도 사랑스럽다. 바바가 너희에게 준 너희의 왕국과 세계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다 가지는 너희 주권의 형태를 1초 이내에 그저 기억하기만 해라. 사람들은 새해를 맞아 한정된 선물들을 서로 주지만, 아버지는 너희에게 세계에 대한 주권의 모든 권리를 선물로 준다. 지금 이때에 불멸하는 이 선물은 흔들림 없는 운명이 되고, 어느 누구도 이 운명을 막지 못하도록 아버지께 의해서 너희들 모두를 위해서 고정된다. 이것은 흔들림 없으며 한결 같다. 너희는 참으로 대단한 선물을 받았다, 그렇지? 아주 세심하게 이 선물을 돌봐라. 무법자들이 너희에게서 이 선물을 탈취해가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모두 이중의 자물쇠를 갖고 있지? 오늘날에는 자물쇠 하나로는 충분치 않다. 이중의 자물쇠가 필요하다. 너희에게는 고드리지 자물쇠가 아닌, 신의 자물쇠가 필요하다. 신은 너희에게, 아무도 열 수 없는 그런 자물쇠를 주었다. 그렇지만 만일 너희가 부주의해지면 강도들이 온다. 강도들은 아주 영리해서 너희가 자물쇠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경우엔 그걸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주의해지지 마라! 올해에 너희들은 자신과 봉사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웠느냐? 너희들은 끊임없이 회의와 대화를 하고 있다마는, 새로운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올해 밥다다는 이 나라와 외국에서 온갖 다양한 직업을 가진 특별하고도 다양한 영혼들의 꽃다발을 보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모든 직업에 아주 많이 봉사해왔다. 이제 각 직업에서 보석을 준비하되, 어떤 직업 하나도 빠지지 않게 해라. 왜냐? 이제 때가 가까워지고 있으니 어느 직업에 속하는 누구도 자기의 직업은 빠졌다는 불평을 하게 하면 안 된다. 각 직업을 대표하는 자들은 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특질을 가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모든 직업과 모든 종교에 속하는 영혼들에게서 “아버지가 오셨다”는 단 하나의 소리만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 영혼들과 모든 직업에 속하는 영혼들에게 씨앗이 심어지는 것은 오직 지금, 합류시대뿐이다. 그들은 내면에 참으로 대단한 힘을 받아서 가지고 다니다가 각자의 때가 되면 자기 자신의 종교와 자기 자신의 직업을 발명해낼 (만들어낼) 것이다. 그들이 각자의 때에 각자의 부서를 만들 수 있도록 너희들이 모든 씨앗들을 전부 다 준비해야 한다. 아버지는 씨앗이고, 브라민 영혼인 너희들은 밀동이다. 씨앗과 밀동에서 다른 영혼들 모두가 나온다. 이제 이 나라와 해외에서 온 너희들 모두는 아버지 앞에 그러한 꽃다발을 가져와야 된다. 각 직업별로 견본을 하나씩 데려와라. 하나의 견본에서 자동적으로 다른 이들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렇긴 하되 그들 각자가 강력한 마이크가 되어야 한다. 이제 다양한 꽃들, 씨앗들, 종교들, 직업들로 이루어진 꽃다발을 준비해야 한다.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을 때 너희가 모든 영혼들을 드높이는 세계를 위한 시혜자인 도구라 불릴 것이다. 가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모든 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런 직업 중 일부는 새로운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동시대와 철시대에 이런저런 것들을 발명할 도구가 될 영혼들은 너희에게서 힘을 받을 것이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너희들 앞에서 아버지의 깃발, 계시의 깃발을 게양하는 데 협력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갖가지 모든 직업에 속하는 자들도 역시 계시의 깃발을 완전히 게양하는 데 협조할 것이다. 오직 그제야 비로소 그것이 “모든 이의 협력을 통한, 행복한 세계의 수립”이라고 불릴 수 있다. 그들은 협력할

테지만, 지금 그들 가운데서 특별한 영혼들이 앞에 나서서 협력할 수 있게 해주어라. 그 영혼들을 도구로 만들어라. 그 영혼들을 도구로 만드는 씨앗을 뿌려라. 너희가 뭘 해야 하는지 이해하느냐? 외국에서는 중요 인사들, 매우 중요한 인사들과 연결되기가 아주 쉬워졌다. 이제는 그것이 어렵지 않지? 그것이 어려우냐, 쉽냐? 그러니 너희들이 다음 새해에 올 때 밥다다는 지난 새해의 선물로 너희가 그런 꽃다발을 가져오는 걸 보기를 원한다. 1년이 남았으니, 짧은 기간이 아니다. 이 나라와 해외에서 온 자들도 역시 이 일을 할 것이다. (하 지.) 너희는 반드시 이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은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라고 말해라. 너희는 그저 도구가 되기만 하면 된다. 이중의 외국인들아, 말해봐라! 외국인들 모두 박수를 쳐도 좋다. 아차, 우리는 이 나라와 해외에서 누가 먼저 이것을 준비할지 두고 보겠다. 우리는 또 너희가 얼마나 큰 꽃다발을 준비하는지도 역시 볼 것이다. 이것이 팬찮으냐?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바바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 나라와 해외에서 온 자들이 바바의 말을 듣고 있다. 이제 그들은 열성적이 되고 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우리는 이런 일과 이 일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차. 그것이 세계를 위한 봉사다.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는 뭘 하려느냐?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도 역시 계획을 세울 테지? 만일 너희가 자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고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세계 봉사는 그 사카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모든 이의 가슴속에 들어 있는 열성과 열의를 알면서도 밥다다가 말하는데, 너희가 다이아몬드 주빌리를 축하하든, 금혼식, 은혼식, 또는 어떤 다른 기념식을 맞이하여 앞으로 축하를 하든, 가슴속에 열성과 열의를 가지고 너희는 진심으로 틀림없이 아버지와 대등해지겠다고 약속했었다. 너희들 모두 이 약속을 했느냐? 이중의 외국인들 모두 이걸 약속했느냐? (모두들 손을 흔들었다.) 아차. 축하한다! 너희들 모두 아주 다정하고 아주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강한 약속을 했다. 이제는 단순히 그 약속을 계속 이행하기만 해라. 약속하던 당시에 너희들은 대단한 열성과 열의로 그 약속을 했다. 그때에 또 너희들은 매우 용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마야가 때로는 생쥐의 모습으로, 가끔은 고양이의 모습으로 왔다. 고양이가 뭘 하느냐? “야옹, 야옹 (영어로는 meow, meow)”이라 한다. 그러면 자녀들은 뭘 하느냐? ”나, 나, 나 (힌디어 발음으로, 메, 메, 메)“ 한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고양이처럼 야옹 야옹 울지 마라. 생쥐는 뭘 하느냐? 생쥐는 뭇 발견만 하면 갹아댄다. 뭇가 뭇지 모르는 탓에 생쥐는 모든 걸 다 갹는다. 그래서 마야는 자녀들의 보물들을 다 갹아서 먹어치운다. 때로는 사자가 온다. 사자는 뭘 하느냐? 사자는 두려움 없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킨다. 사자는 전능한 권위자 자녀들을 낙담시킨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지 마라! 아무 것도 오도록 놔두지 마라! 끊임없이 자물쇠를 이중으로 채워놓아라! 올해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오게 하지 마라. 올해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해, 해방의 해로 축하해라. 오직 올해를 해방의 해로 축하해야만 너희가 비로소 해방의 나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뭘 하겠느냐?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이다. 밥다다가 너희에게 아주 짧은 구호를 하나 주마. ”가치 있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쓰고, 성공을 거둬라!“ 모든 것을 가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성공을 거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느냐? 이해하느냐? 모든 것을 가치 있는 방식으로 쓰고 성공해라! 너희가 가진 뭇 가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야겠느냐? 너희가 가진 모든 것, 소유물, 시간, 생각, 호흡, 몸, 마음, 부 등 모든 것을 가치 있는 방식으로 써라. 아무 것도 낭비하지 마라. 필요할 때를 위해서 뭇지 조심해서 자물쇠로 채워둬라. 심지어 너희의 생각까지도 가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라! 각각의 모든 생각 하나하나가 너희의 자산이다. 돈은 물리적인 너희의 소유물이다. 마찬가지로 시간, 호흡, 생각도 너희들의 미묘한 소유물이다. 단 하나의 생각도 허비하면 안 된다. 그 모두를 가치 있는 방식으로 써야 된다. 너희가 마음, 말, 행위 어느 것을 통해서 봉사하든, 어느 정도로나 가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얼마나 축적했는지 항상 점검해라. 올해에 밥다다는 특별한 이 축복을 주겠다. ”모든 것을 가치 있는 방식으로 쓰고 뭇 백만 곱절의 성공을 경험해라!“ 너희는 이 즉각적인 결실을 아주 쉽게 획득할 수 있다. 그저 정직한 마음만 가지면 된다. 볼라나트 아버지, 밥다다는 정직한 마음에 쉽사리 기뻐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가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라. 매 순간 지식의 부, 힘들의 부, 미덕들의 부를 가치 있는 방식으로 써라. 너희들은 그것들을 가치 있는 방식으로 쓰는 법을 아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전부 옆에 치워두고서 조심스럽게 지키는 방법을 아느냐? 그것들을 옆에 치워두지 마라! 그것들을 써라! 너희들 스스로 얘기하기를, 모든 것이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있으니, 너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치 있는 방식으로 써라. 밥다다는 그것 중 무뭇 하나도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모아두어라. 밥다다는 공여자다. 뭇가치를 가치 있는 방식으로 쓴다는 것은 그것을 모은다는 뜻인데,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밥다다는 너희들이 축적해놓

은 계좌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밥다다는 그와 함께인 너희 자녀들 모두의 축적의 계좌를 갖고 있다. 바바가 너희들 축적의 계좌에서 뭘 봤겠느냐? 자기가 많은 걸 축적해 뒀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믿는 자녀들이 많다. 겉으로 그들은 많은 것을 축적해왔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 각자에 대한 아버지의 축적의 계좌에는 너희들 각자가 말하거나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 있다. 어째서 그러하냐? 그것은 ‘나’와 ‘나의 것’이라는 의식에 대한 제1과와 관련이 있다. ”내가 그걸 했어.“ ”이건 나의 봉사이고 나의 일이야.“ 축적할 당시에 너희들은 축적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은 자동적으로 너희 축적의 계좌에서 빠져나가서 낭비의 계좌에 모인다. 이 미묘한 기계는 완전 자동이다. ”바바가 이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바바의 봉사입니다. 제가 하는 봉사가 아닙니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했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그 일을 했다.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을 거듭 되풀이하지 마라. 끊임없이 ”나, 나“ 하지 마라. ”바바, 바바“ 라고 해라, 그러면 너희가 몇 백만 곱절로 축적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나’라고 말하거나 ”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경우엔 그것이 낭비의 계좌로 이체될 것이다. 이 자동기계는 너희가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속도가 빠르다. 오직 ”나의 것“이라는 의식에서 초연한 자들만 정직한 마음으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 봉사가 처음 수립되던 당시에 원래의 보석인 너희들 모두가 나왔을 때, 너희들은 끊임없이 뭘 느꼈느냐? 너희는 한결같이 무슨 말을 했었느냐? 너희들이 ‘나’라는 의식을 조금이라도 가졌었느냐? 너희가 ”바바, 바바“ 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바의 상속자들이 되어 이제 봉사를 시작한 자들이 된 것이다. 이것이 ”바바, 바바“ 라고 말하는 것의 증거다. 지금은 바바에게 오는 상속자 자질이 있는 영혼들이 거의 없다. 왜 그러하냐? ”바바“에 ‘나’라는 의식이 섞였다. 이런 이유로 올해 밥다다는 열린 마음으로 너희를 축복하고 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축적해라!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많이 하되 모든 것을 가치 있는 방식으로 행하고 성공의 화신이 되어라!“ 앗차. 너희들이 최근에 어떤 행사를 축하했느냐? 실버 주빌리였다. 실버 주빌리를 축하한 자들은 손을 들어라! 축하예식을 치른 자들은 손을 들어봐라! 너희들은 이중으로 축하식을 했다. 그것은 바라트 출신인 자들의 축하였고, 또 해외에서 온 자들의 축하식이기도 했다. 축하하는 것은 좋다, 즉 그것은 너희들 자신에게 굳건한 약속의 인장을 찍는다는 뜻이다. 너희들은 이 축하예식을 축하했다. 밥다다도 역시 이 장면을 무척 잘 즐겼다. 축하하는 것과 더불어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든 너희는 그것이 불멸하고도 확고하게 변함없이 남도록 전능한 정부의 인장으로 찍어야 한다. 축하한다는 것은 너희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뜻이다. 너희는 그렇게 강한 인장을 찍었느냐? 아니면 희미하게 도장을 찍었느냐? 똑똑하게 도장을 찍었느냐? 실버 주빌리를 축하하고 있는 너희 쿠마르들은 손을 아주 잘 흔들고 있구나. 너희들은 이 축하예식을 확고하게 축하했느냐? 좋다. 이 장면을 잊지 마라. 나약함이 나올 때마다 이 축하예식의 사진을 앞에 두어라. 각자의 사진이 찍히고 있지? 그걸 각자에게 주었느냐? 너희들 모두 사진을 받느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사진을 찍지는 않는다. 사진이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찍기 마련이다. 너희가 약해질 때 앞에 자기 사진을 둘 수 있도록 사진들을 찍는 것이다. 그런 때 기억도 나지 않도록 너희의 사진들을 장롱 안에 넣고 잠가두지 마라. 이것은 모든 선물들 중에서 최대의 선물이다. 이것이 너희들을 상기시키는 방식이다. 앗차.

새 시대의 세계 주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들에게, 자신들의 새로운 삶을 통하여 만사를 변화시키는 세계 변화자 영혼들에게, 모든 것을 끊임없이 가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성공의 화신이 되는 영혼들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흔들림 없고 한결 같은 영혼들에게, 자기들의 축하행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열의를 유지하면서 남들에게 열의를 불어넣어주는 자들에게, 새해를 맞이하고 새 시대의 수립을 맞이하여 밥다다는 축하한다, 축하한다, 축하한다. 더불어 용기를 지속함으로써 발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용기를 지속함으로써 도움을 받는 자녀들 모두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축 복: 한결같이 가벼움을 유지하며 눈 속에 아버지를 향시 지니고 있는, 쉬운 요기 영혼이 되어라.

너희가 합류시대에 받은 행복의 광산은 다른 시대에는 받을 수 없다. 지금 이때에는 아버지와 자녀들의 만남, 유산과 축복이 있다. 유산이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 노력도 필요치 않다. 너희의 칭호가 쉬운 요기인 이유가 이것이다. 밥다다는 자녀들이 애쓰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다. 그가 말하는데, 너희의 짐을 모두 아버지에게 넘겨주고 너희는 가벼워져라. 아버지가 그의 눈 속에 너희를 앉혀서 데리고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져라. 아버지께 대한 너희들의 사랑의 징표는 한결같이 가볍게 지내면서 아버지의 눈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슬로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도로를 폐쇄해라, 그러면 너희가 성공의 화신이 될 것이다.

*** 음 샨티 OM SHANTI ***